

『黃帝內經』의 九鍼과 官鍼 개념에 대한 小考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²
白裕相¹·金度勳²*

A Study on the Gu-chim(九鍼) and Guan-chim(官鍼) of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Baik You-sang¹ · Kim Do-hoon² *

¹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 ²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 History, Kyungwon University

Generally, we regard the concept of Guchim(九鍼) in 『Naegyeong(內經)』 as the a generic term of acupuncture means of nine kinds of forms and usages. However, it also contains the meaning of methods and transcripts of acupuncture.

The diversity of Guchim reflects that it has a high level diagnosis and treatment based on overall analysis of symptoms and signs. And among the treatments, reinforcing and reducing methods are prominent. The treatments of reinforcing and reducing methods, usually use Hochim(毫鍼), the filiform needle.

The focus of Guchim, using in reinforcing and reducing of Gi(氣), is reinforcing and reducing by way of drainage of Gi. And it mainly deals with diseases of Gi.

From the research of the philosophic background of the number Nine in Chinese philosophy, number nine symbolizes the posterior and space, as number one symbolizes apriority and time. In this circumstances, Guchim became the supreme method of acupuncture.

The concept of Gwanchim(官鍼), standardized needle in 『Naegyeong』 also expresses the Guchim as theory and skill in standardized traditional medicine.

The period of materialization of Guchim and Gwanchim lies in from the era of Jeonguk[戰國時代, the age of civil wars] to Han dyansty[漢代], when the 『Naegyeong』 made a synthesis of the medicine in those days, as the society unified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In this process, Guchim was sublimated in method of acupuncture which contained absolute authority.

Key Words : Guchim(九鍼), Gwanchim(官鍼), reinforcing and reducing method(補瀉), Hochim(毫鍼),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I. 序論

* 교신저자 : 金度勳,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Tel : 031)750-5422, E-mail : chulian@kyungwon.ac.kr
접수일(2008년 4월 29일), 수정일(2008년 5월 13일), 게재확

정일(2008년 5월 16일)

『內經』에서 九鍼의 명칭은 여러 편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아홉 개의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가진 鍼具의 총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서 鍼法 또는 鍼經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內經』에 나오는 九鍼의 개념을 종합한 결과 하나의 鍼法으로 규정하였으며 관련 배경들을 찾아보았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九鍼 중 毫鍼을 중심으로 한 補瀉法, 微鍼 및 小鍼과의 관계, 九鍼의 남방 유래설 등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九數가 가지는 철학적 배경, 官鍼 개념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九鍼 및 官鍼 개념이 확립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II. 本論

1. 九鍼의 의미

『內經』에 제시된 여러 가지 치료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鍼灸 치료이다. 특히 침 치료의 도구로서 九鍼이 『內經』 전체를 통해 여러 번 제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九鍼十二原」, 「九鍼論」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九鍼은 좁은 의미¹⁾로는 아홉 개의 다양한 침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즉, 『靈樞·九鍼十二原』은 九鍼의 이름과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술하여, “九鍼之名, 各不同形.”이라고 지적하였으며, 鑱鍼, 圓鍼, 銀鍼, 鋒鍼, 鈹鍼, 員利鍼, 毫鍼, 長鍼, 大鍼 등을 합하여 九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근거해서 九鍼이 단지 아홉 종류의 鍼具로서 인식하게 되면, 이름과 형태적으로 분석한 의미 이외로는 더 파악할 수 없게 된다²⁾.

九鍼의 의미를 확대해 보면, 『內經』에서의 九鍼은 이러한 도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침을 활용하는 鍼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鍼法을 총체적으로 대표할 뿐 아니라 『鍼經』이라는 텍스트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九鍼은 『內經』이 종합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명칭으로 보인다. 『靈樞』와 『素問』의 여러 편에서 모두 “余聞九鍼於夫子.”의 자구가 보이는데, 九鍼이 이미 『內經』 편찬 이전에 의사들 사이에서 전수되었던 내용임을 말해주는 것이다³⁾.

黃帝問曰, 余聞九鍼於夫子, 衆多博大, 不可勝數. 余願聞要道, 以屬子孫, 傳之後世, 著之骨髓, 藏之肝肺, 敵血而受, 不敢妄泄, 令合天道, 必有終始, 上應天光星辰歷紀, 下副四時五行, 貴賤更互, 冬陰夏陽, 以人應之奈何, 願聞其方. 岐伯對曰, 妙乎哉問也. 此天地之至數. (『素問·三部九候論』)⁴⁾

여기서는 九鍼의 효용이 매우 넓고 큼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것이 天地의 지극한 數[법칙]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靈樞·外揣』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黃帝曰, 余聞九鍼九篇, 余親授其調⁵⁾, 頗得其意. 夫九鍼者, 始於一而終於九, 然未得其要道也. 夫九鍼者, 小之則無內, 大之則無外, 深不可爲下, 高不可爲蓋, 恍惚無窮, 流溢無極, 余知其合於天道人事四時之變也, 然余願雜之毫毛, 渾東爲一, 可乎. 岐伯曰, 明乎哉問也, 非獨鍼道焉, 夫治國亦然. 黃帝曰, 余願聞鍼道, 非國事也. 岐伯曰, 夫治國者, 夫惟道焉, 非道, 何可小大深淺, 雜合爲一乎. (『靈樞·外揣』)⁶⁾

1) 九鍼의 의미는 협의적으로는 九鍼論, 九鍼十二原 등에 기록된 9종의 제작방법 및 사용용도가 다른 침구이며, 광의적으로는 官鍼의 五刺, 九刺, 十二刺와 연계된 광범위한 치료수단을 의미한다. (정기진, 조현석, 윤종화. 九鍼에 관한 연구. 大韓氣功學會誌. 1998. 2(2). pp.186-199.)
2) 何學斌, 羅濟民, 王華. 淺析“九鍼”之義. 中國鍼灸. 2003. 23(6). p.374. 참조. 그러나, 큰 틀에서 內經의 九鍼의 형태는 후대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한 글도 보인다.(白茅. 從“伏羲制九鍼”談起. 中華醫史雜誌. 2000. 30(3). p.174.)

3) 趙明山. 九鍼與 黃帝內經. 中醫藥學刊. 2001. 18(1). p.7.
4)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132.
5) 여기서 調는 法度를 말한다(才略, 知慧로 해석할 수도 있다). 楊上善은 九篇은 九鍼을 말하며, 장이 나뉜 것이 편이라고 하여, 전체가 九篇인 것은 아니라고 하기도 했으나, 아홉 편으로 된 九鍼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澁江抽齋. 靈樞講義 下.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692.)
6)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313.

즉, 九鍼은 만물을 대변하는 終始로서 大小內外와 高下에 한계가 없으며 그 흘러감이 끝이 없어 天道, 人事, 四時의 변화에 합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九鍼의 鍼法 활용이 매우 넓고 또한 그것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九鍼은 침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룬 편명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침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鍼經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內經』의 여러 편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⁷⁾ 이를 통하여 『內經』이 참고로 한 그 이전의 醫經이 있었고, 이러한 醫經 가운데 九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黃帝問曰, 余聞九鍼九篇, 夫子乃因而九之, 九九八十一篇, 余盡通其意矣.(『素問·離合眞邪論』)⁸⁾

黃帝閑居, 辟左右而問於岐伯曰, 余已聞九鍼之經, 論陰陽逆順, 六經已畢, 願得口問. 岐伯避席再拜曰, 善乎哉, 問也. 此先師之所口傳也.(『靈樞·口問』)⁹⁾

黃帝曰, 余受九鍼於夫子, 而私覽於諸方, 或有導引行氣喬摩灸熨刺焫飲藥之一者, 可獨守耶, 將盡行之乎.(『靈樞·病傳』)¹⁰⁾

雷公問於黃帝曰, 細子得受業, 通於九鍼六十篇, 旦暮勤服之, 近者編絕, 久者簡垢, 然尙諷誦弗置, 未盡解於意矣.(『靈樞·禁服』)¹¹⁾

7) 內經에 인용된 초기 의학문헌은 上經, 下經, 揆度, 奇恒 등 10여 종에 달한다. 內經의 수많은 글들은 이러한 古醫經 저작의 전승과 발전인 것이다. 그 가운데 “九鍼之經”(鍼經이라고도 함)은 內經의 편찬자들이 근거로 삼았던 중요한 古醫經의 하나였다. 九鍼之經은 鑱鍼, 毫鍼 등 9종 금속침구가 발명된 후에 쓰여졌으며, 9편, 60편, 그리고 81편 등의 여러 계통의 진본이 있었다. (趙明山. 九鍼與 黃帝內經. 中醫藥學刊. 2001. 18(1). pp.7-8.)

8)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168.

9)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238.

10)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300.

이상의 내용을 보면 九鍼이라는 명칭을 가진 9數 체계의 책이 있었으며, 그 속에는 단지 침의 운용법 뿐만 아니라 경락을 암시하는 陰陽逆順과 三陰三陽 六經의 내용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九鍼은 의학의 정통 과목이었으며 81편 또는 60편의 체계로 만들어져 있었다.

2. 鍼法으로서 九鍼의 의미

『靈樞·官鍼』에서 “九鍼之義, 各有所爲. 長短大小, 各有所施.”라 하여 九鍼은 각기 적응하는 곳이 있다고 하였고, 『靈樞·九鍼十二原』에서 구체적으로 형태를 묘사하였으며, 『靈樞·官鍼』에서 九鍼의 사용과 관련된 논술이 결합되어있다. 『內經』에서 말하는 九鍼이 이와 같이 다른 형태와 효능을 가지는 것은, 임상에서 당연히 서로 다른 병증은 서로 다른 침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¹²⁾.

九鍼法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는 진단에 따라 九鍼 중에서 알맞은 형태의 침을 선정한 후 자침한다. 아홉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진단, 치법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핵심적인 시행방법은 氣의 개합에 따라 手技法을 통하여 補瀉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九鍼의 사용은 의료기술의 진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九鍼法을 통한 장기적인 기술 축적은 經脈, 絡脈 및 俞穴의 진일보한 이론적 발전을 촉진시키게 된다. 즉, 九鍼法의 보급을 통해서 경락 계통의 구성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경락의 인식이 다시 脈診의 발전과 폭넓은 적용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¹³⁾.

예를 들어 『靈樞·經脈』에서 치료법으로 매 12經脈 하단부에 “爲此諸病,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¹⁴⁾를 제

11)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334.

12) 歐陽八四. 鍼灸溯源-九鍼의起源 運用與發展. 鍼灸臨床雜誌. 2005. 21(7). p.48.

13) 趙明山. 九鍼與 黃帝內經. 中醫藥學刊. 2001. 18(1). p.7.

14)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灸法은 단지 한 종류 陷下에 만 쓰이며 그 나머지는 鍼刺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는 침 치료가 당시 보편적으로 운용되었으며 경락 계통의 형성은 장기적 침 치료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¹⁵⁾.

凡刺之要，官鍼最妙。九鍼之宜，各有所爲，長短大小，各有所施也，不得其用，病弗能移。(『靈樞·官鍼』)¹⁶⁾

黃帝曰，余聞刺有九宜。岐伯曰，明知九鍼之論，是謂九宜。(『靈樞·五禁』)¹⁷⁾

그 쓰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을 없앨 수 없다는 것으로 적합한 鍼刺의 선택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침으로써 우리 몸의 虛實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九鍼法이며 虛實 각각의 경우에 적절히 맞추어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九鍼法이 虛實補瀉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치료하므로 그 활용도가 끝이 없으며, 반대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黃帝問曰，願聞九鍼之解，虛實之道。岐伯對曰，刺虛則實之者，鍼下熱也，氣實乃熱也。滿而泄之者，鍼下寒也，氣虛乃寒也。菀陳則除之者，出惡血也。邪勝則虛之者，出鍼勿按。徐而疾則實者，徐出鍼而疾按之。疾而徐則虛者，疾出鍼而徐按之。言實與虛者，寒溫氣多少也。若無若有者，疾不可知也。察後與先者，知病先後也。爲虛與實者，工勿失其法。若得若失者，離其法也。虛實之要，九鍼最妙者，爲其各有所宜也。補瀉之時¹⁸⁾者，與氣開闔相合也。九鍼之名，各不同形者，鍼窮其所當補

會。1994. pp.118-134.

15) 趙明山. 九鍼與 黃帝內經. 中醫藥學刊. 2001. 18(1). p.8.

16)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89.

17)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399.

18) 補瀉之時：林校에 甲乙經에 의하면 이 아래에 “以鍼爲之” 4字가 탈락되어 있다고 하였다.(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309.)

瀉也¹⁹⁾。(『素問·鍼解』)²⁰⁾

虛實之要，九鍼最妙，補瀉之時，以鍼爲之。(『靈樞·九鍼十二原』)²¹⁾

虛實을 조절하는 補瀉法을 시행할 때 九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九鍼이 분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補瀉法을 다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九鍼의 구체적인 용도를 살펴보면 毫鍼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과적 처지²²⁾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員鍼, 鍤鍼, 鋒鍼, 鈹鍼 등은 分肉, 經脈 등을 자극하거나 절개하여 농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大鍼도 역시 관절의 水氣를 제거하는 침이다. 員利鍼도 갑자기 痺氣가 폭발하였을 때 자극을 주는 용도이며, 기타 捷표의 陽邪를 가볍게 날려보내는 鑱鍼, 깊은 痺를 치료하는 長鍼을 제외하면 毫鍼만 주로 여러 補瀉法을 시행할 수 있는 중심적인 침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九鍼의 기원이 고대 신석기시대 砭石²³⁾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원시적인 자극 요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九鍼은 각기 다른 사용목적에 따라서 砭石의 형태로 내려오다가 후대에 결합되어 점차 九鍼의 틀을 만들어간 것이다. 『內經』의 편찬시기에 이르러서야 九鍼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²⁴⁾.

19) 본 단락은 靈樞·九鍼十二原 3장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여기서는 補瀉를 시행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명칭과 형태가 다른 九鍼은 각각 마땅히 보사를 행해야 할 바를 지극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鍼窮其所當補瀉)

20)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p.308-309.

21)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21.

22) 九鍼이 모두 침구에 쓰인 것은 아니며 어떤 것들은 외과의 공구였는데, 鈹鍼, 鍤鍼 등이 그러하다. 員利鍼은 “腐腫”을 깨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白茅. 從“伏羲制九鍼”談起. 中華醫史雜誌. 2000. 30(3). p.174.)

23) 砭石은 가장 원시적인 의료도구였다. 최초의 펌식은 여러 용도로 쓰여서 熨貼, 按摩, 切割, 放血, 淺刺 등에 쓰였다. 후세 침자는 펌식의 淺刺기능의 기초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금속침의 출현 전에, 骨鍼, 陶鍼, 竹鍼, 木鍼 등이 있었다. 제련기술의 향상에 따라 금속침이 출현했는데, 최초의 금속침은 청동침이었다. (白茅. 從“伏羲制九鍼”談起. 中華醫史雜誌. 2000. 30(3). p.174.)

24) 歐陽八四. 鍼灸溯源-九鍼의起源 運用與發展. 鍼灸臨床雜

한편 이와 같이 九鍼의 대부분이 외과적 시술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虛實 補瀉를 강조한 것은 실제 아홉 개의 침 중에서 補瀉法을 시행할 수 있는 毫鍼 등의 효능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補瀉의 手技法을 시행할 수 있는 毫鍼은 가장 가늘고 섬세하게 사용하는 침으로서 『內經』의 다른 편에서 말한 微鍼, 小鍼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

우선 毫鍼의 용도를 살펴보자. 「九鍼十二原」과 「官鍼」에서 호침은 痛痺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痛痺는 주로 寒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邪客於足少陽之絡，令人留於樞中痛，髀不可舉，刺樞中²⁵⁾，以毫鍼，寒則久留鍼，以月死生爲數，立已。(『素問·繆刺論』)²⁶⁾

毫鍼者，尖如蚊虻喙，靜以徐往，微以久溜之，而養以取痛痺。(『靈樞·九鍼十二原』)²⁷⁾

病痺氣痛而不去者，取以毫鍼。(『靈樞·官鍼』)²⁸⁾

『素問·繆刺論』에서는 髀樞에 통증이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毫鍼을 쓰는데 寒으로 인한 것일수록 오래 留鍼하라고 하였다. 痛痺에 毫鍼을 쓰는 것과 의미가 같으며 오래 유침하는 것은 補法의 하나로서 기를 침 끝에 모으는 효과가 있다. 「九鍼十二原」에서도 고요히 왕래하여 미세하게 오래 유침하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특히 補法과 관련되어 있어서 九鍼에 속하는 다른 침들이 주로 외과적 시술에 관련 있는 것과 대비된다.

誌. 2005. 21(7). p.48.

25) 樞中：環跳穴이다. 王冰은 “髀樞之後，則環跳血也。正在髀樞後，故言刺髀樞後也。環跳者，足少陽脈氣所發，刺可入同身寸之一寸，留二十呼。若灸者，可灸三壯。毫鍼者，第七鍼也。”라고 하였다.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 下.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p.1266-1267.)

26)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361.

27)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24.

28)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90.

黃帝曰，刺嬰兒奈何。岐伯曰，嬰兒者，其肉脆，血少氣弱，刺此者，以毫鍼，淺刺而疾發鍼，日再可也。(『靈樞·逆順肥瘦』)²⁹⁾

請言氣街³⁰⁾，胸氣有街，腹氣有街，頭氣有街，脛氣有街。故氣在頭者，止之於腦，氣在胸者，止之膺與背腧，氣在腹者，止之背腧，與衝脈於臍左右之動脈者，氣在脛者，止之於氣街，與承山踝上以下。取此者，用毫鍼，必先按而在，久應於手，乃刺而予之。所治者，頭痛眩仆，腹痛中滿暴脹，及有新積。痛可移者，易已也，積不痛，難已也。(『靈樞·衛氣』)³¹⁾

黃帝曰，官鍼奈何。岐伯曰，刺癱者，用鉞鍼。刺大者，用鋒鍼。刺小者，用員利鍼。刺熱者，用鑱鍼。刺寒者，用毫鍼也。(『靈樞·刺節眞邪』)³²⁾

『靈樞·逆順肥瘦』에서는 嬰兒를 자침하는 경우에 미세한 毫鍼을 써서 얇게 놓고 유침을 짧게 하라는 내용인데 그만큼 毫鍼의 운용이 섬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靈樞·衛氣』의 경우 기가 많이 모이는 氣街에 자침할 때 毫鍼을 써서 손끝에 느껴지는 鍼感을 기준으로 手技法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역시 毫鍼이 기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여 氣病을 치료함을 알 수 있다. 『靈樞·刺節眞邪』에서는 鑱鍼과 대비하여 설명하였는데 鑱鍼이 체표를 건드려 陽邪를 제거하는 반면에 毫鍼은 오래 유침하여 氣를 모아서 寒邪를 몰아냄을 설명하였다. 『靈樞·九鍼論』에서도 “七曰毫鍼，取法於毫毛，長一寸六分，主寒熱痛痺在絡者也。”라 하여 絡脈에 氣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寒熱과 痺證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九鍼이 補瀉法과 연결되는데 그 핵심에는 毫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鑱鍼도 熱邪를 제거한다고는 하였으나 鍼의 구조와 鍼法으로 볼 때 『靈樞』 다른 편에 나오는 補瀉法을 시행하기에는 어

29)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285.

30) 街：“道”의 뜻이다. 氣가 모이고 다니는 道路라는 뜻이다.

31)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360.

32)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486.

려워 보인다. 또한 이러한 補瀉法の 치료 대상은 주로 氣가 막혀서 생긴 氣病이나 저림 증상 그리고 예민하게 手技法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3. 微鍼과 小鍼의 의미

鍼의 本義는 刺한다는 것으로 『說文解字』에서 “所以縫也”라 하였다. 鍼尖이 예리하고, 鍼身이 가늘고 긴 것이 기본적 침의 외형인데, 毫鍼, 鑱鍼, 長鍼 등은 이러한 침의 형태에 유사하며 “末如劍鋒”이라고 한 鍼鍼 오히려 칼의 형태에 가깝다³³⁾.

九鍼 가운데 毫鍼, 長鍼 등은 鍼尖이 예리하고 침체가 가늘기 때문에 微鍼이라고 이를 수 있다. 微鍼은 필요에 따라 깊이가 다른 치료에 자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手技法을 사용하여 시행되어 침의 효능을 증강시키게 된다. 의사는 침감이 전해지는 노선을 경맥이 주행하는 방향과 부위에 맞추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⁴⁾. 또한 기술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까지는 강도와 탄성이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微鍼[毫鍼]의 종류와 같은 정밀한 침구는 제작할 수 없었다³⁵⁾. 따라서 毫鍼은 비교적 후대인 철기 시대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 毫鍼을 미세하게 유침하라고 하였는데 毫鍼은 아주 가느다란 형태를 한 침이다. 우선 微鍼에 대한 내용을 『內經』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南方者，天地所長養，陽之所盛處也，其地下，水土弱，霧露之所聚也，其民嗜酸而食附³⁶⁾，故其民皆緻理而赤色，其病攣痺，其治宜微鍼，故九鍼者，亦從南方來。(『素問·異法方宜論』)³⁷⁾

暮世之治病也則不然，治不本四時，不知日月，不審逆從，病形已成，乃欲微鍼治其外，湯液治其內，粗工兪兪，以爲可攻，故病未已，新病復起。(『素問·移精變氣論』)³⁸⁾

其小痺淫溢，循脈往來，微鍼所及，與法相同。(『素問·氣穴論』)³⁹⁾

『素問·異法方宜論』에서는 攣痺를 微鍼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鈎針의 유래와 함께 설명되어 있으며 『素問·移精變氣論』에서는 비록 微鍼으로써 밖으로 치료한다고는 하였으나 이는 안을 치료하는 湯液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체표만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장부에 병이 들어 고착되지 않는 상태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素問·氣穴論』에서도 작은 痺症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때 微鍼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氣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좀 더 개념이 확장되어 經脈을 소통시켜 血氣를 조절함으로써 逆順出入의 會를 운영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黃帝問於岐伯曰，余子萬民，養百姓，而收租稅。余哀其不給，而屬有疾病。余欲勿使被毒藥，無用砭石，欲以微鍼通其經脈，調其血氣，營氣逆順出入之會。(『靈樞·九鍼十二原』)⁴⁰⁾

또한, 微鍼과 비슷한 小鍼의 개념을 살펴보면, 『靈樞·小鍼解』는 곧 『靈樞·九鍼十二原』을 주석한 편인데 九鍼을 小鍼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小鍼이 九鍼을 대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靈樞·九鍼十二原』에서도 “小鍼之要，易陳而亂入。”⁴¹⁾이라 하여 小鍼의 요점이 설명은 쉬우나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黃帝曰，余以小鍼爲細物也，夫子乃言上合之於天，下合之於地，中合之於人，余以爲過鍼之意矣，願聞其

33) 何學斌, 羅濟民, 王華. 淺析“九鍼”之義. 中國鍼灸. 2003. 23(6). p.374.
 34) 趙明山. 九鍼與 黃帝內經. 中醫藥學刊. 2001. 18(1). p.8.
 35) 吳彌漫. 從文化學角度探析內經義理. 中醫藥臨床雜誌. 2006. 18(2). p.104.
 36) 모든 주석이 “附”를 “腐”로 말하였는데, 썩기 쉬운 물건으로 물고기도 그 종류의 하나이다.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08.)
 37)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78.

38)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82.
 39)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326.
 40)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19.
 41)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20.

故。岐伯曰，何物大於天乎，夫大於鍼者，惟五兵者焉。五兵者，死之備也。非生之具，且夫人者，天地之鎮也，其不可不參乎。夫治民者，亦唯鍼焉。夫鍼之與五兵，其孰小乎。(『靈樞·玉版』)⁴²⁾

여기서도 小鍼이 별 것 아닌 것[細物]으로 여겼지만 결국에는 天地人에 합치한다고 말하고 있다. 鍼을 형태가 비슷한 병기와 비교하여 볼 때 다섯 가지 병기는 사람을 죽이는데 주로 쓰이지만, 鍼은 天地人 중에서 人이 天地에 參하여 중심이 되듯이 못 백성들을 살리게 되니 병기보다도 의미가 크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靈樞·玉版』에서는 병이 化膿되기 이전에 미리 聖人이 소침으로 치료한다고 하여 높은 치료술을 의미하고 있다.

黃帝曰，病之生時，有喜怒不測，飲食不節，陰氣不足，陽氣有餘，營氣不行，乃發爲癰疽。陰陽不通，兩熱相搏，乃化爲膿，小鍼能取之乎。岐伯曰，聖人不能使化者爲之，邪不可留也。(『靈樞·玉版』)⁴³⁾

黃帝曰，其已有膿血而後遭乎，不導之以小鍼治乎。岐伯曰，以小治小者，其功小，以大治大者，多害，故其已成膿血者，其唯砭石鍼鋒之所取也。(『靈樞·玉版』)⁴⁴⁾

이상을 종합해 보면 毫鍼, 微鍼, 小鍼 등은 비슷한 의미로서 단지 가늘고 작다는 것뿐만 아니라 九鍼을 대표한다는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九鍼의 상당수가 砭石으로부터 유래되어 외과적인 시술에 사용되는 반면에 毫鍼은 補瀉法을 기반으로 발전한 手法法을 시행함으로써 침 치료의 영역을 넓힌 새로운 鍼法으로 볼 수 있다.

4. 九鍼 남방 유래설

九鍼이 南方에서 왔다는 것⁴⁵⁾도 곧 南方人의 인체

42)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391.

43)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392.

44)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392.

변화가 빠르고 세밀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침을 사용하여 虛實補瀉를 시행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 남방에서 철의 주조술이 발달하였으므로 침이 남방에서 기원한 것이 맞다고 보는 연구결과⁴⁶⁾도 있으나, 고고학적 성과로는 이미 증원에 九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하므로 남방 유래설은 조금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南方者，天地所長養，陽之所盛處也，其地下，水土弱，霧露之所聚也，其民嗜酸而食飴，故其民皆緻理而赤色，其病癰痺，其治宜微鍼，故九鍼者，亦從南方來。(『素問·異法方宜論』)⁴⁷⁾

즉, 南方은 熱과 濕이 많은 지방으로 氣의 순행이 막혀서 생기는 癰痺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微鍼을 써서 氣의 순환을 조절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기를 조절하는 목적을 가진 九鍼法이 南方에서 많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역시 濕熱이 문제되어 氣行이 저체되는 사람의 병증에 九鍼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九數의 철학적 배경

『靈樞·九鍼論』에서 “以鍼應九之數”를 해석할 때 “夫聖人之起，天地之數也，一而九之，故以立九野，九

45) 침의 기원에 관해서는 素問·異法方宜論에서 “南方者，……其病癰痺，其治宜微鍼，故九鍼者，亦從南方來。”라고 하였다. 그런데 九鍼의 전신인 砭石은 동방에서 왔다고 하였다. (“其病皆爲癰瘍，其治宜砭石，故砭石者，亦從東方來.”) 고고학적 성과로 볼 때, 九鍼이 단순히 남방에서 온 것은 아니다. 九鍼의 기원지는 어떤 하나의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九鍼의 응용은 상당히 광범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歐陽八四. 鍼灸溯源-九鍼的起源 運用與發展. 鍼灸臨床雜誌. 2005. 21(7). p.48.)

46) 九鍼 제조의 기술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靈樞·玉版에서는 이를 병장기와 함께 들어 거론하고 있다. 고대 남방의 제련 기술 발달로 干將과 莫邪와 같은 명검, 吳鉤寶劍 등이 모두 吳越荊楚 지역에서 나왔는데, 內經에서 九鍼이 남방에서 왔다고 하였으니 근거가 있는 말이다. (吳彌漫. 從文化學角度探析內經義理. 中醫藥臨床雜誌. 2006. 18(2). p.104.)

47)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78.

而九之, 九九八十一, 以起黃鍾數焉, 以鍼應數也.”⁴⁸⁾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九”의 數에 대응시켰는가의 象數學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古籍을 살펴보면, “九”의 본래 뜻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다는 것[多]이며, 둘째로 궁극[極]을, 셋째는 변화[變]를 말한다고 한다⁴⁹⁾. 많고 다양함, 궁극과 변화 등의 의미가 종합되어 있어서, 『靈樞』에서 말한 “九鍼”은 단순히 아홉 가지의 다른 형상의 침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靈樞·九鍼論』에서 “一以法天, 二以法地, 三以法人, 四以法時, 五以法音, 六以法律, 七以法星, 八以法風, 九以法野.”⁵⁰⁾라고 하였고, 『素問·鍼解』에서도 “夫一天, 二地, 三人, 四時, 五音, 六律, 七星, 八風, 九野, 身形亦應之, 鍼各有宜, 故曰九鍼.”⁵¹⁾라 하여 九鍼이 天人相應의 이치를 구현하는 기본 규율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九數의 의미를 象數學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만물의 시초인 一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수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수이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대표하고 있다. 『內經』에서 一과 九는 처음과 끝을 의미하여 합하여 終始라고 표현하고 있다. 『靈樞·外揣』에서 “夫九鍼者, 小之則無內, 大之則無外, 深不可爲下, 高不可爲蓋, 恍惚無窮, 流溢無極, 余知其合於天道人事四時之變也.”⁵²⁾라 一數와 九數의 무한성을 표현하였고, 『靈樞·根結』에서도 “九鍼之玄, 要在終始, 故能知終始, 一言而畢, 不知終始, 鍼道成絕.”⁵³⁾이라 하였다. 終始는 天地宇宙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그 가운데 一은 天時를 상징하고 九는 地方을 상징한다. 一은 先天의 象

을, 九는 後天의 象을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중 地方은 中央과 正方, 間方의 각 공간을 합하여 九州 또는 九野에 해당하고 우리 몸에서는 공간적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天時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여 神의 變化를 상징한다. 九數가 地方의 공간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內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九者, 野也, 野者, 人之節解皮膚之間也, 淫邪流溢於身, 如風水之狀, 而溜不能過於機關大節者也, 故爲之治鍼, 令尖如挺, 其鋒微員, 以取大氣之不能過於關節者也.(『靈樞·九鍼論』)⁵⁴⁾

黃帝曰, 夫自古通天者生之本, 本於陰陽.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九州九竅**五藏十二節, 皆通乎天氣. 其生五, 其氣三, 數犯此者, 則邪氣傷人, 此壽命之本也.(『素問·生氣通天論』)⁵⁵⁾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其氣九州九竅**, 皆通乎天氣. 故其生五, 其氣三. 三而成天, 三而成地, 三而成人, 三而三之, 合則爲九. **九分爲九野, 九野爲九藏, 故形藏四, 神藏五, 合爲九藏以應之也.**(『素問·六節藏象論』)⁵⁶⁾

『靈樞·九鍼論』에서 사람의 “節解皮膚之間”을 다스린다는 것도 곧 사람의 形體를 두루 가리키는 것이며, 『素問·生氣通天論』과 『素問·六節藏象論』에서도 九數가 九野의 공간을 상징하여 우리 몸에서도 각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九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九數는 실행의 완성 단계를 의미하므로 최종 단계에 이르렀을 때 九數가 다시 九로 분화 되어 81數가 만들어지면, 이는 天地의 大數로서 黃鍾數를 일으켜 萬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素問·離合

48)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505.

49) 何學斌, 羅濟民, 王華. 淺析“九鍼”之義. 中國鍼灸. 2003. 23(6). p.375. 참조.

50)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505.

51)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310.

52)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313.

53)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72.

54)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507.

55)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28.

56)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63.

眞邪論』에서도 九鍼九篇과 九九八十一篇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靈樞·九鍼論』에서도 黃鐘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黃帝曰, 以鍼應九之數, 奈何. 岐伯曰, 夫聖人之起, 天地之數也, 一而九之, 故以立九野, 九而九之, 九九八十一, 以起黃鐘⁵⁷⁾數焉, 以鍼應數也.⁵⁸⁾(『靈樞·九鍼論』)⁵⁹⁾

이와 같은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九鍼法은 우리 형체의 아홉 구역의 虛實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밖으로는 九竅에 통하여 우리 몸 전체를 의미하는 三百六十五節의 기운을 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素問·鍼解』에서 “人皮應天, 人肉應地, 人脈應人, 人筋應時, 人聲應音, 人陰陽合氣應律, 人齒面目應星, 人出入氣應風, 人九竅三百六十五絡應野, 故一鍼皮, 二鍼肉, 三鍼脈, 四鍼筋, 五鍼骨, 六鍼調陰陽, 七鍼益精, 八鍼除風, 九鍼通九竅, 除三百六十五節氣, 此之謂各有所主也.”⁶⁰⁾라 하였다. 진단법에 있어서는 九野를 기본으로 하는 三部九候 脈法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素問·八正神明論』에서는 “三部九候爲之原, 九鍼之論,

不必存也.”⁶¹⁾라 하여 三部九候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九鍼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였다.

6. 官鍼과 九鍼의 관계

鍼刺法이란 침 치료 시 효능을 거두는 관건이 되며, 『內經』에서는 이에 관하여 일찍이 상세히 밝혀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靈樞·官鍼』에서 九刺, 十二刺, 五刺 등에 이미 26종의 鍼法⁶²⁾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刺法은 후대 鍼灸 임상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금 임상에 적용되어 효과를 보고 있는 鍼刺法이다.⁶³⁾

이러한 鍼刺法들을 官鍼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침을 사용하는 요점은 官鍼이 가장 요묘하며 그 구체적인 운용은 九鍼을 진단 및 임상 조건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官字의 의미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며 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靈樞·官能』에서는 “知官九鍼, 刺道畢矣.”⁶⁴⁾라 하여, 九鍼을 잘 알아서 다스리면 刺法의 道를 끝까지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凡刺之要, 官鍼⁶⁵⁾最妙. 九鍼之宜, 各有所爲, 長短大小, 各有所施也. 不得其用, 病弗能移.(『靈樞·官鍼』)⁶⁶⁾

57) 黃鐘: 6律의 하나로 고대의 音律을 교정하는 악기의 일종이다. 대나무로 만드는데 길이가 9寸이며 每寸은 기장 아홉 개의 세로 길이에 해당하고 9寸은 합하여 81개의 기장 길이에 달한다. 九鍼은 이 數에 응하니 그 변화가 다양해서 많은 질병에 활용할 수 있다. 살펴보면, 기장의 세로 길이는 기장알의 길이이다. 고대에는 기장(黑黍)으로 分寸을 정하였고, 도량형의 표준으로 삼아 音律을 제정하였다. 한 알 기장의 세로 길이를 1푼으로 하였는데, 9푼이 1촌이 되는데, 기장 아홉 알로 직경이 서로 이어지게 하여 1촌이 되는 것이다.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93.) “黃鐘”은 “黃鐘”이라고도 한다.

58) 丹波元簡은 “帝王世紀云, 黃帝使伶倫, 於大夏之西, 崑崙之陰, 取竹解谷, 其竅厚均者, 斷兩節間, 吹之以黃鐘之管, 以象鳳鳴, 雌雄各六, 以定律呂. 淮南子云, 數始於一, 一生三, 三生萬物, 故三月爲一時, 三三如九, 故黃鐘之律九寸, 而宮音調, 因而以九之九九八十一, 黃鐘之數立焉. 白虎通云, 黃鐘何, 黃中和氣之鍾者動也. 言陽於黃泉之下, 動萬物也.”라고 하였다.(澁江抽齋. 靈樞講義 下.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1049.)

59)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505.

60)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p.310-311. 여기서, “除三百六十五節氣”의 “除”는 응당 “應”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1)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166.

62) 靈樞·官鍼은 자법을 탐구하는 專論으로 여기서 제시한 “九刺”, “十二刺”, “五刺” 등은 비록 刺法으로 이름하였지만, 구체적인 수법조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침자의 심도, 자침 도달 조직, 배혈의 방법 및 어떤 종류의 특수작용이 있는 자법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許建敏, 王彩虹. 靈樞·官鍼 篇刺法之釋義. 上海鍼灸雜誌. 2001. 20(6). p.42.)

63) 許建敏, 王彩虹. 靈樞·官鍼 篇刺法之釋義. 上海鍼灸雜誌. 2001. 20(6). p.41.

64)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463.

65) 馬蒔는 “官者, 任也. 官職者, 任九鍼之所宜也, 故名篇.”이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官, 法也, 公也, 製有法而公於人, 故曰官鍼.”이라고 하였으며, 張志聰은 “官, 法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澁江抽齋는 두 張氏의 “法”이라는 풀이가 근사하다고 하였다.(澁江抽齋. 靈樞講義 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175.)

黃帝曰, 官鍼奈何. 岐伯曰, 刺癰者, 用鍼鍼. 刺大者, 用鋒鍼. 刺小者, 用員利鍼. 刺熱者, 用鑱鍼. 刺寒者, 用毫鍼也. (『靈樞·刺節眞邪』)⁶⁷⁾

鍼灸의 요점은 官鍼에 있으며 결국 내용적으로 九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니, 제대로 사용하여 못하였을 경우에는 병을 몰아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세부적인 치료 목적에 사용하는 九鍼이 곧 官鍼임을 말하고 다시 말해주고 있다. 물론 『靈樞·官鍼』에는 十二刺, 五刺 등 다른 정형화된 鍼法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에 침구학이 발전되면서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7. 九鍼 및 官鍼 개념 성립의 시대적 배경

『內經』은 前漢期 이전에 당대 의학 이론과 임상 의 원칙 등을 총집결한 저작으로서 이론적 통일을 통하여 정통 의학의 권위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內經』의 분량이 상당히 많고 다양한 학설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陰陽五行, 三陰三陽, 十二經絡, 藏象 등의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는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前漢 이전 春秋戰國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로서 오히려 다양한 의학적 성과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러한 성과들을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뒷받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오랜 분열기를 거쳐 漢으로 통일되었으며, 철학적으로는 董仲舒에 의해 儒學을 바탕으로 道家 및 기타 사상들을 흡수하여 국가 철학을 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董仲舒가 구상하였던 新儒學 체계는 이전 초기 유학과는 달리 다원화된 개방적 체계였으며 특히 道家의 黃老學이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道家哲學의 道論을 채용하여 元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였고 그 속에

天의 本體 사상을 합치하였다. 또한 우주 본체인 天의 구체적인 운동 변화를 稷下 黃老學派의 氣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黃老의 無爲사상을 새로운 유학체계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董仲舒의 유학 체계는 표면적으로는 儒術獨尊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문화의 양대 주류인 儒·道 두 학문의 일차 대융합을 완성시켰다⁶⁸⁾. 이러한 철학적 문화적 배경 속에 『內經』이 집대성 된 것으로 보인다.

鍼灸 분야에서 官鍼은 바로 이러한 이론의 정규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실제적인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九鍼을 운영하여 補瀉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殷代 이후 祭政一致의 체제가 점차로 약화되어 가면서 巫醫로부터 의학이 갈라져 나와 발전을 이루다가, 戰國時代 말기부터 이루어진 정치적, 사상적 통일을 배경으로 하나의 통일된 의학 체계로서 권위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內經』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九鍼은 단순한 아홉 개의 鍼具가 아니라 신묘한 鍼法의 요체로서 인식되었으며 그 의학적 권위를 官鍼이라 표현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며 그 핵심에는 毫鍼[微鍼 또는 小鍼]을 중심으로 세밀한 補瀉法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 의하여 단순한 외과적 처치를 벗어나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까지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이는 곧 당시 의학의 발전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內經』 이전 시대인 馬王堆醫書 등에서는 주로 灸法 혹은 砭石을 이용하여 瀉血, 排膿이나 단순한 자극을 주었다. 전설상으로는 伏羲가 鍼을 발명한 것이라고 晉代 皇甫謐이 『帝王世紀』에서 “伏羲制九鍼.”을 말하였는데, 대략 중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초기로서 관련 연구에서는 당시 의료에 砭石을 제작 사용하였다고 한다. 『說文解字』에서 이미 “砭, 以石刺病也.”라 하였고, 이러한 砭石은 熨貼, 按摩, 切割, 放血, 淺刺 등 여러 용도에 쓰였던 것으로 본다⁶⁹⁾. 기술적으

66)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89.

67)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486.

68) 梁宗華. 董仲舒新儒學體系與道家黃老學. 齊魯學刊. 1999. 6. pp.32-37.

69) 白茅. 從“伏羲制九鍼”談起. 中華醫史雜誌. 2000. 30(3). p.174.

로 보면 후대의 九鍼은 제련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기술의 진보도 침구 치료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九鍼法의 補瀉 운용은 이전 시대 보다 좀 더 명확해진 이론체계와 정교한 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아진 당대의 의학 수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 結 論

1. 일반적으로 『內經』에 나오는 九鍼의 개념은 아홉 개의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가진 鍼具의 총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內經』의 여러 편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鍼法 및 鍼經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었다.

2. 九鍼의 다양성은 곧 진단에서 처방까지 여러 질환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內經』 시대에 높은 변증시치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며, 그 중에서도 補瀉法이 강조되고 있다.

3. 九鍼法 중 상당수 鍼들이 목적으로 하는 외과적 처치와는 달리 補瀉法은 鍼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毫鍼을 사용하여 手技法에 따라 행해졌고, 小鍼, 微鍼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었다.

4. 補瀉法을 중심으로 하는 九鍼法의 핵심은 氣의 소통을 통하여 補瀉하는데 있으며 九鍼이 南方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주로 氣病을 치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5. 九數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一數와 더불어 시작과 끝[終始]를 이루어 一數가 선천과 공간을 상징하는데 비하여 九數는 후천과 공간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몸의 氣를 조절하는 최고의 침술로서 九鍼을 표현하였다.

6. 『內經』에 나오는 官鍼의 개념도, 鍼法의 하나인 九鍼을 국가적 권위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정통의학의 이론과 기술로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7. 九鍼 및 官鍼 개념이 성립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戰國時代 말기와 前漢 시기에 걸쳐 정치적 사상적으로 통일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內經』이라는 모습으로 당대의 의학이 집대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九鍼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鍼具의 범주를 벗어나 절

대적 권위를 가진 鍼法의 차원으로 승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꾸준히 발전되어온 임상 침 치료술의 향상과 補瀉法을 가능하게 한 鍼具 제작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었다.

參考文獻

<논문>

1. 吳彌漫. 從文化學角度探析 內經 義理. 中醫藥臨床雜誌. 2006. 18(2). p.104.
2. 歐陽八四. 鍼灸溯源-九鍼的起源 運用與發展. 鍼灸臨床雜誌. 2005. 21(7). pp.47-48.
3. 何學斌, 羅濟民, 王華. 淺析“九鍼”之義. 中國鍼灸. 2003. 23(6). pp.374-375.
4. 許建敏, 王彩虹. 靈樞·官鍼 篇刺法之釋義. 上海鍼灸雜誌. 2001. 20(6). pp.41-42.
5. 趙明山. 九鍼與『黃帝內經』. 中醫藥學刊. 2001. 18(1). pp.7-8.
6. 白茅. 從“伏羲制九鍼”談起. 中華醫史雜誌. 2000. 30(3). p.174.
7. 梁宗華. 董仲舒新儒學體系與道家黃老學. 齊魯學刊. 1999. 6. pp.32-37.
8. 정기진, 조현석, 윤중화. 九鍼에 관한 研究. 大韓氣功學會誌. 1998. 2(2). pp.186-199.

<단행본>

1. 澁江抽齋. 靈樞講義 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175.
2. 澁江抽齋. 靈樞講義 下.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692, 1049.
3.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 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308.
4. 山田業廣. 素問次注集疏 下.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p.1266-1267.
5.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19, 20, 21, 24, 72, 89, 90, 238, 285, 300, 313, 334, 360, 391, 392, 399, 463, 486, 505, 507. pp.118-134.

6.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28, 63, 78, 82, 132, 166, 168, 310, 326, 361. pp.308-309, 310-311.
7.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93.